

#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송예지	영문	Song YeJi
학과(전공)	신소재공학부		학번	201**678
파견 학기	summer term 2017		연락처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EAH-Jena

❖ 경험보고서는 다음 파견 학생을 위해 A4 3페이지 이상 상세히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우선, 주변에 아는 오빠와 언니들이 독일 예나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면서 지원해보라며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 3학년 때는 전공수업 때문에 지원을 못하였다가 비교적 여유가 생긴 4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럽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 가기도 지리적으로 좋았고 공대생이다 보니 막연하게 독일 자동차라던지 독일기술들이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대학 중 독일의 예나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6개월 동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옷을 많이 챙겼었는데 막상 생활해보니 가져간 옷 절반은 입지도 않았고 독일에서도 생필품이나 옷들을 팔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챙겨갈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가기 전 독일 쪽 튜터 언니가 학교 기숙사 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학교 서류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무비자로 90일 체류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은 한국에서 따로 해가지 않아도 되며 독일에 도착해서 튜터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예나대학교에 우리학교는 물론 전남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많은 대학교에서 교환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독일에 도착해서 보험가입, 거주자 등록, 비자 신청들을 하면 3개월 안에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무비자로 독일에 가도 됩니다. 비자 신청은 6개월과 1년 짜리가 있는데 생활하다 보면 연장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제 주변에도 연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장하든 안하든 1년짜리로 비자를 신청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항공권은 네이버나 스카이스캐너 등 많은 예약사이트를 이용하여 꽤 저렴한 항공권으로 샀습니다.

###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우선 예나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 주변에 변화가가 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독일이라는 나라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나가 대학도시이다 보니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독일 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경험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유럽이다 보니 비도 자주 오고 갑자기 4월달에는 눈이 오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급변하기 때문에 두꺼운 옷은 필수로 들고 다녀야 합니다.

###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꾸려져 있고 수업도 많은 편이긴 하지만 영어로 수업하는 전공수업은 한정적이고 신소재공학부에 맞는 전공수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어실력을 늘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영어 수업을 4개, 엑셀과 파워포인트 등 서류 작업을 위한 마이크로 소프트 스킬에 관한 수업을 1개, 총 5개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우선, 5개의 모든 수업이 다 좋았습니다. 영어 수업은 대체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생님께서 정해주시면 모둠을 짜서 그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수업입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제 생각을 말한다는 게 힘들고 적응도 안 되어 힘들었지만 수업을 듣다보니 외국인 친구들도 생겼고 영어로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재미있어졌습니다. 때문에 전공수업 뿐만 아니라 영어수업도 수강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Soft Skills 수업은 컴퓨터로만 하는 시험이었고 따로 시험을 치지 않고 컴퓨터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 비는 한 달에 20만원 좀 넘는 금액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나대학교에는 기숙사가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학교 교환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기숙사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칼자이츠, 모리츠, 직프 세가지 인데 칼자이츠가 제일 학교에서 가깝고 대부분 2인실입니다. 그리고 모리츠와 직프는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가야 하는데 모리츠와 직프는 서로 마주보고 있고 모리츠가 직프보다 새건물이라서 시설은 더 좋습니다. 모리츠와 직프는 대부분 4인실이거나 5인실입니다. 생활비는 독일 생필품이나 식재료 물가가 워낙 싸다보니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이곳 저곳 여행을 다니다 보니 6개월동안 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교환학생들을 위한 영어수업이 많기 때문에 듣고 싶은 영어수업을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되고 금오공과대학교를 대표해 교환학생으로 예나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결석하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교환학생이 해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생식당이 학교 건물마다 있는 편이라 학생증일 지참하면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대학교에는 동아리 종류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풋살, 축구, 농구, 수영, 춤, 탁구, 암벽등반, 펜싱 등 거의 모든 스포츠가 동아리로 있기 때문에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스포츠 동아리를 가입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동아리 비용은 과목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K-pop 댄스와 볼링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볼링 동아리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같은 편이 되어 스포츠를 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독일 선생님께서 자세도 교정해주셔서 볼링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볼링 동아리를 추천합니다.

###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예나가 워낙 교환학생들이 많고 많은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는 도시라 그런지 인종차별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 주식이 빵이라는 것, 설거지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 욕실이 건식욕실이라 바닥에 물이 튀어서는 안 되며 샤워를 할 때는 꼭 샤워부스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한다는 것 등 문화적으로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라며 불평불만 하기 보다는 독일 문화임을 받아들이고 빨리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다면 한국음식이 너무 그리워지는데 학교 근처에 한인마트도 2개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로 라면이나 한국식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저는 2017년,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 한 행동이 교환학생을 지원한 거라 생각합니다. 6개월동안 총 13개국을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인종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각 나라의 문화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간 여행 다니고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제 삶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는 유럽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를 할 때 어려운 단어를 나열해야 잘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 간단한 단어를 쉽게 나열하는 것이 소통이 더 잘 되고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취업준비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면서 힘든 날도 분명히 생길 거 같지만 그때마다 유럽생활을 추억하면서 버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